

발표일 : 2017년 2월 28일



최근 5년간(2012~2016년) 3월 상순과 중순에는 대부분의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나, 서해중부해상은 중순부터 낮았음. 3월 하순에는 서해, 남해에서 파고가 낮았지만, 동해와 제주도 해상에서는 파고가 약간 높았음.

해양기상

- 최근 5년간(2012~2016년) 3월 상순과 중순에는 대부분 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거문도, 거제도, 동해, 울릉도, 포항, 마라도)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나, 중순에는 서해중부해상(덕적도, 외연도)은 낮았음. 3월 하순에는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과 남해해상(거문도, 거제도)에서는 파고가 낮았고,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과 제주도(마라도)에서는 파고가 약간 높았음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2~2016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 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 미만), 매우 높음(3.0m 이상)

- 서해안의 인천은 3월 30일에 902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3월 29일에 384cm, 동해안의 포항은 3월 31일에 20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양안전

- 무리한 조업·항해 자제 및 항해중에는 어창 등 개구부 밀폐 철저
- 출항 전 기상정보 파악 및 인명구조 장비 확인 철저
- 장기 정박후 조업 출항하는 어선은 선체 및 엔진 정비 후 출항
- 5톤 미만 소형어선(1인 조업선)은 자체 안전대책 강구

어업기상

- 3월의 수온은 동해가 7~13℃로 평년에 비해 1~2℃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이겠고, 남해는 8~14℃, 서해는 4~8℃ 분포로 평년과 비슷한 수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동해: 7 ~ 13℃ • 남해: 8 ~ 14℃ • 서해: 4 ~ 8℃

자료협조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국립수산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안전심판원



해 황

서해중부해상

상순	중순	하순
약간높음	낮음	낮음

동해중부해상

상순	중순	하순
약간높음	약간높음	약간높음

서해남부해상

상순	중순	하순
약간높음	약간높음	낮음

동해남부해상

상순	중순	하순
약간높음	약간높음	약간높음

남해서부해상

상순	중순	하순
약간높음	약간높음	낮음

남해동부해상

상순	중순	하순
약간높음	약간높음	낮음

제주도해상

상순	중순	하순
약간높음	약간높음	약간높음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미만), 매우높음(3.0m 이상)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2~2016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최근 5년간('12~'16년) 3월 파고 관측값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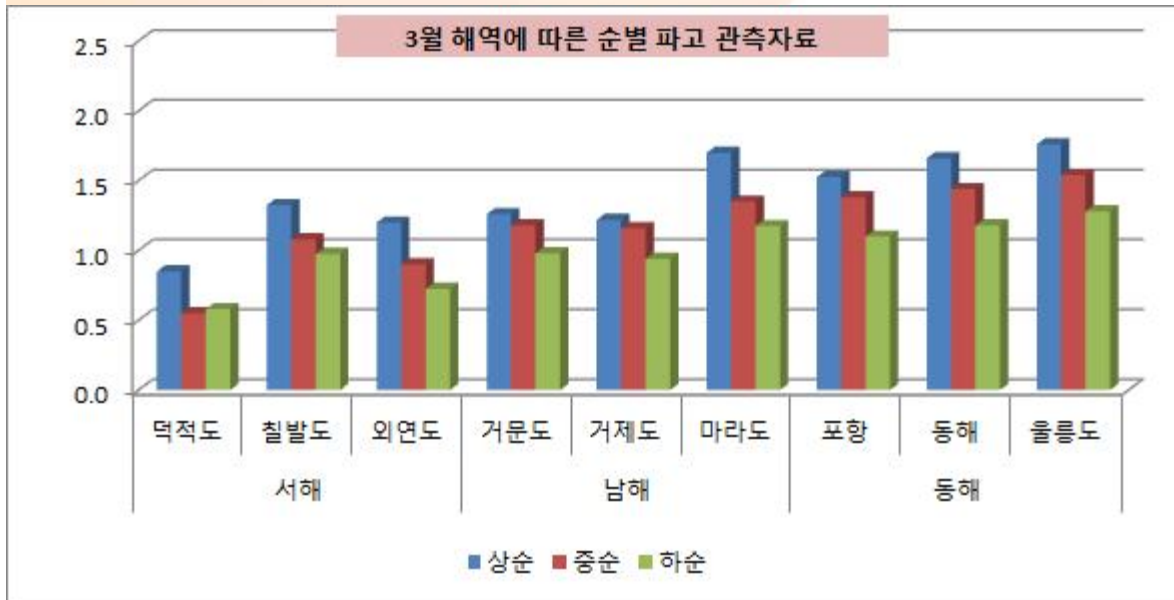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2012 ~ 2016년) 3월 순별 파고 관측값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3월 상순에는 전 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거문도, 거제도, 동해, 울릉도, 포항, 마라도)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3월 중순에도 거의 모든 해상(칠발도, 거문도, 거제도, 동해, 울릉도, 포항, 마라도)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나 서해중부해상(덕적도, 외연도)은 낮았음.

3월 하순에는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과 남해해상(거문도, 거제도)에서는 파고가 낮았고,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과 제주도해상(마라도)에서는 파고가 약간 높았음.

3월에 파고가 가장 높았던 곳은 동해중부해상(울릉도)에서 1.76m(상순)이었고, 파고가 가장 낮았던 곳은 서해중부해상(덕적도)에서 0.55m(중순)이었음.(그림1)

▶ 최근 5년 및 2016년 3월 풍랑특보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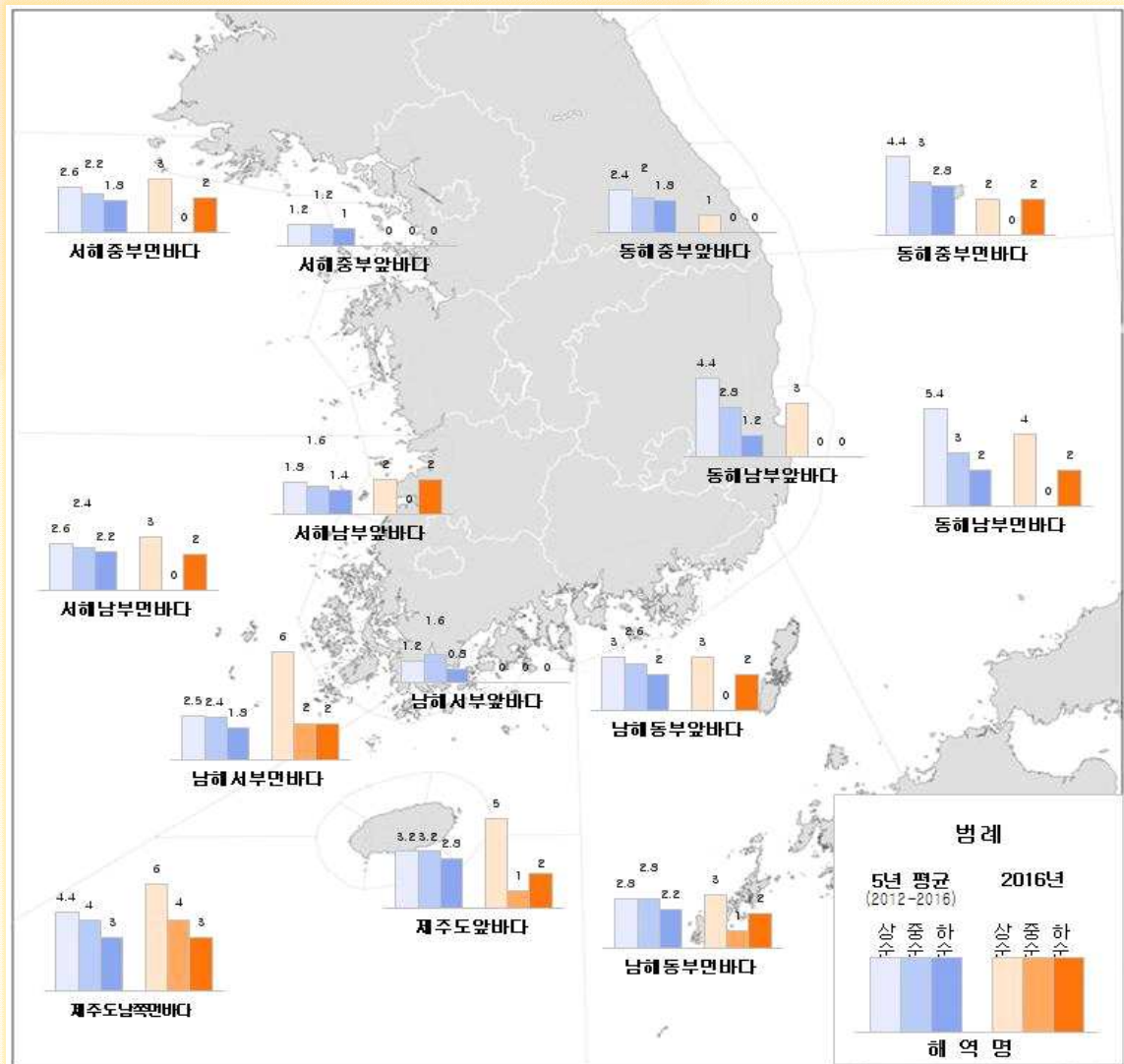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2012~2016년) 및 2016년 3월의 풍랑특보일수(상순, 중순, 하순)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3월의 풍랑특보 발표 일수는 평균 7.4일로 전월(2월 평균 7.5일)과 비슷하였음. 순별 특보 평균일수는 상순(3.0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순(2.5일), 하순(1.9일)로 특보 일수가 나타났음. 지난해(2016년) 3월의 풍랑특보일수는 상순에 풍랑특보가 2.9일로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3.0일)와 비슷하게 발표하였고, 중순의 풍랑특보는 0.6일로 최근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2.5일)보다 적게 발표하였으며, 하순에는 풍랑특보가 1.5일로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1.9일)보다 적게 조금 적게 발표하였음. 최근 5년간 3월에 풍랑특보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역은 제주도남쪽면바다에서 총 평균 3.8일로 발표하였으며, 서해중부앞바다에서 1.1일로 가장 적었음.

▶ 지난해(2016년) 3월의 해황

2016년 3월에는 전 해상에서 북서에서 북동풍계열의 바람이 주로 나타났음. 풍속도 해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 해상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46.4%, 5.0~9.9m/s의 바람이 약 44.0%의 분포를 보였고, 10m/s 이상의 바람은 약 9.6%의 분포를 보였음.

앞바다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36.9%, 5.0~9.9m/s의 바람이 약 43.8%, 10m/s 이상의 바람이 약 18.6%로 나타남.

2016년 3월의 해역별 바람 상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해역		주풍계	풍속 분포(%)			
광역	국지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앞바다	북서~북동	60.0	31.4	5.5	0.0
	먼바다	북~북서	56.3	35.2	5.1	0.0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서	46.3	38.8	9.3	1.1
	먼바다	북~북동	40.8	31.2	6.6	0.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동	34.3	46	15.6	3.6
	먼바다	남서~북서	35.3	52.7	10	0.3
제주도	앞바다	북서~북동	55.8	30.8	8.5	4.3
	남쪽먼바다	북~북동	26.2	50.2	15.6	6.9
남해동부	앞바다	북서~북동	66.3	31.2	1.5	0.3
	먼바다	남서~북동	37.6	55.6	5.4	0.0
동해남부	앞바다	남서~북동	43.8	42.5	11.3	1.6
	먼바다	남서~북동	36.6	54.3	8.9	0.0
동해중부	먼바다	남서~북동	47.0	47.2	4.0	0.0
전해상			46.4	44.0	8.4	1.2

작년(2016년) 3월의 해역별 파고분포를 살펴보면, 전 해상은 1.0m미만의 파고가 60% 이상을 보이며 낮은 파고의 비율이 높았음, 특히 1.0m미만의 낮은 파고는 서해상에서 77.7%로 동해와 남해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3.0m이상의 높은 파고는 제주도해상에 7.5%로 높은 비율을 보임.

해역구분	파고분포(%)				
	<1.0m	1.0~1.9m	2.0~2.9m	3.0~4.9m	>=5.0m
서해상	77.7	17.3	4.4	0.7	0.0
남해상	59.0	37.3	3.8	0.0	0.0
제주도해상	36.3	46.9	9.3	7.5	0.0
동해상	56.3	36.5	6.0	1.2	0.0
전해상	61.1	32	5.6	1.3	0.0

▶ 봄철, 기상해일 주의!!

▷ 기상해일이란?

기상해일은 먼바다의 급격한 기압변화⁽¹⁾로 기상해일이 발생하여⁽²⁾ 공진으로 증가한 해일이⁽³⁾ 연안의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 순식간에 바닷물이 높아지는 현상⁽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봄철(3~5월)에 빠른 속도(시속 약 80km)로 이동하는 기압계의 급격한 기압변화(1시간동안 3hPa 이상)에 의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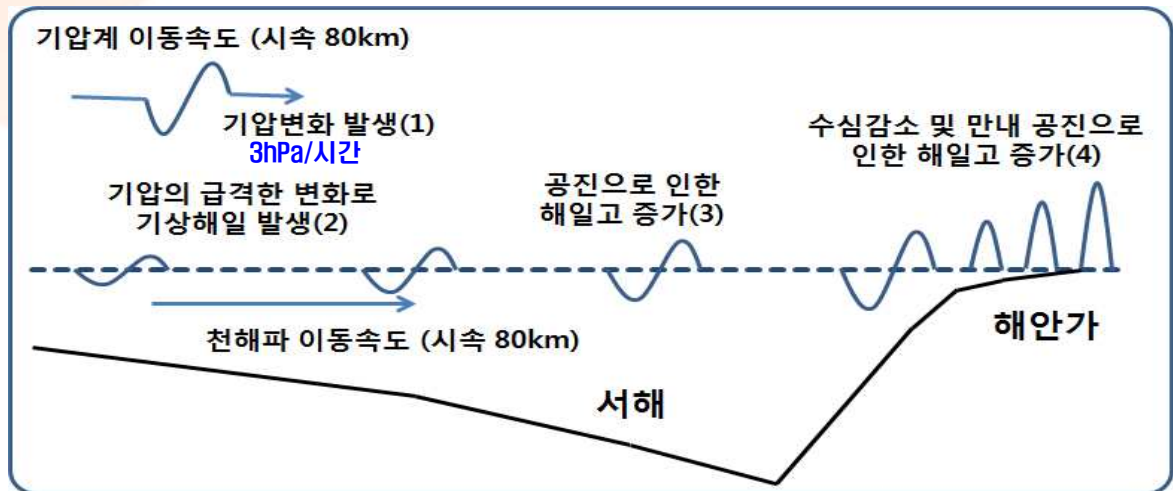


그림 3. 기상해일 발생 모식도

* 천해파 : 수심이 파장의 1/20보다 얕을 때의 해파, 해일고 : 해일현상으로 발생한 해면 높이의 변화량

▷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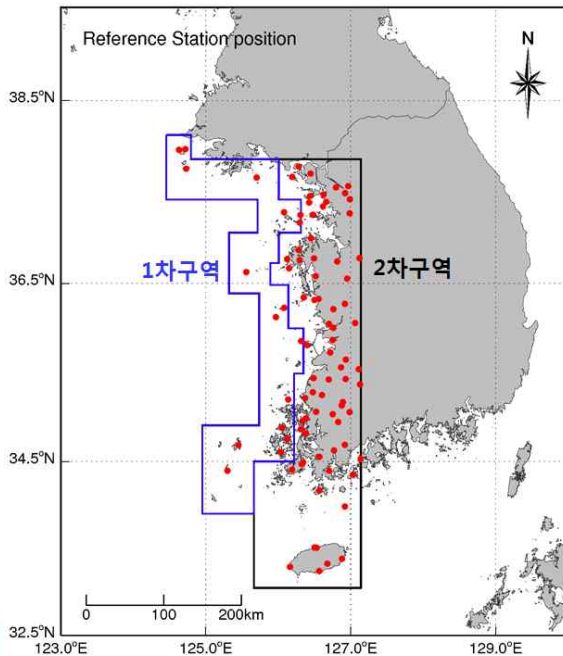
국내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2005년 2월 제주 옹포리를 시작으로 2007년 3월 31일에 영광일대에서 발생하여 주택가 침수와 어선 전복 피해가 있었으며, 특히, 2008년 5월 4일에는 보령 죽도에서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

순번	발생장소	일시	사고기록
1	제주도 한림읍 옹포리	2005. 2. 9. 14:10	해안가 가옥 침수
2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앞 바다	2006. 8.27. 4:30	낚시객 3명 파도에 휩쓸렸다 1명 실종
3	전남 영광군 법성포, 부안군, 고창군 일대	2007. 3.31. 01:10	사망 4명, 주택침수 158동, 선박 전복 및 유실 150척, 차량 침수 20대, 양식장 유실 4.5ha, 영광원전 냉각수펌프 침수 등 (재산피해액 2,245백만원)
4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방파제 및 대천해수욕장 인근 갯바위	2008. 5. 4. 12:41	24명 사상 (사망 9, 입원 2, 완치 후 퇴원 13)
5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2010. 1. 2. 19:00	1명 실종
6	전남 신안군 흑산면	2011. 4. 26. 10:55	가두리 시설 파손(15어가 40칸), 유실(60칸), 소형선박 4척 침수

▷ 기상청, 감시체계 구축 및 발생가능성 정보 제공

기상청에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전 해역에 18개소의 연안방재 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기상해일의 발생 가능성과 도달 해역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연안 89개 지점을 선정하여 먼바다에서는 기상해일 발생 유무를 판단하고, 연안에서는 기상해일 피해 예상 지역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그 외에도 기상해일 감시대응반을 구성하고 예측시스템에서 나온 결과를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초동 대응 시간을 확보하여 기상해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기압변화 감시 지점>



<연안방재 관측시스템(보령)>

▷ 기상해일, 안전대책은?

기상해일이 내습하면 연안에서 크기가 급격히 커지므로, 방파제와 갯바위, 항내 접안시설 등 해안가에서 하던 활동을 즉시 멈추고 그 지역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함. 특히, 먼바다에서는 기상해일을 느낄 수 없으므로, 기상해일 발생 정보를 취득하였을 경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항구로 복귀하지 말고 대기해야함. 서남해안에 거주하거나 여행가시는 분들은 봄철에는 기상해일에 대한 관심을 평소에 가져야 하고, 현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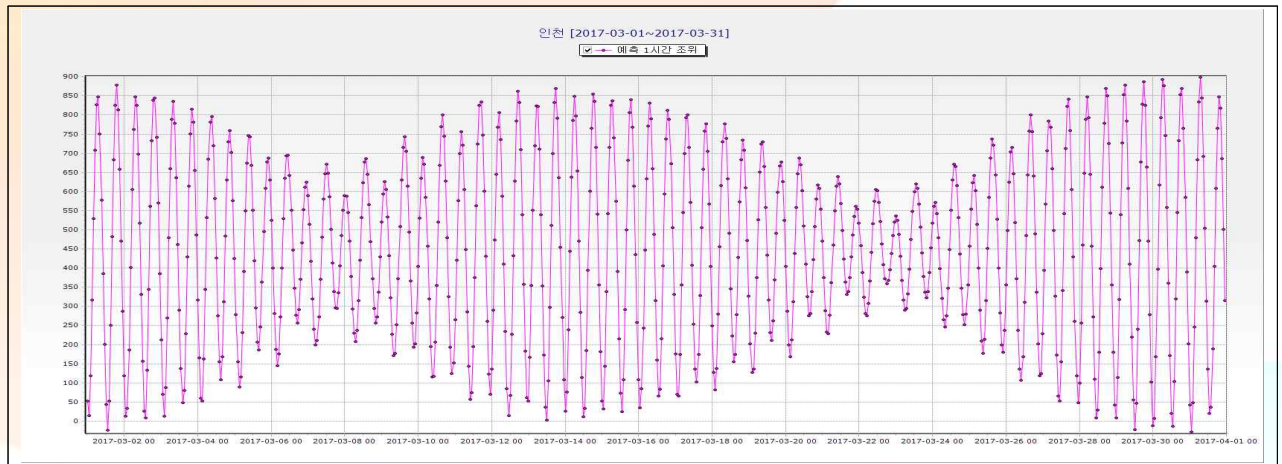
▶ 2016년 3월 조석 예보

제 공 : 국립해양조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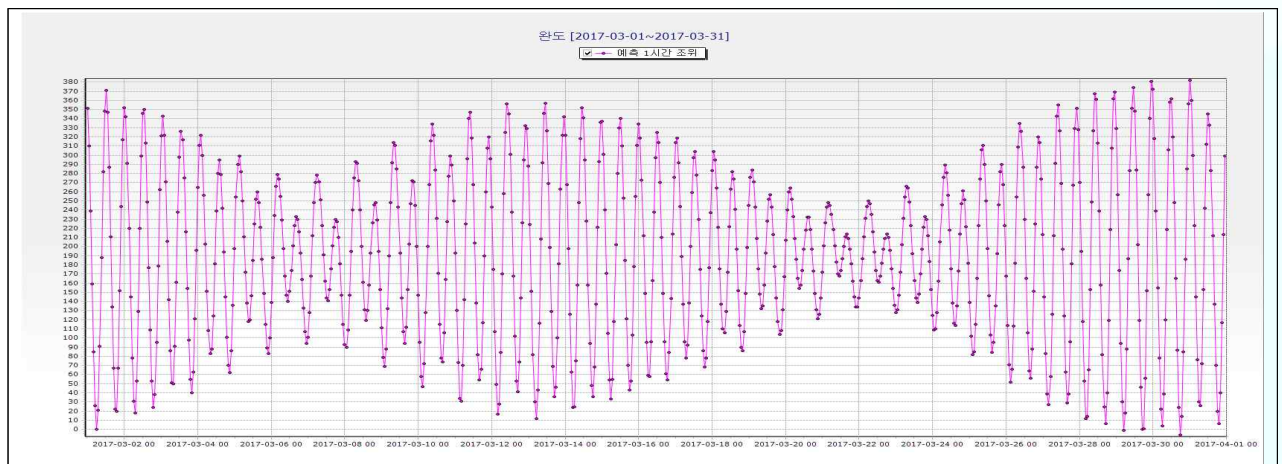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3월 30일에 902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3월 29일에 384cm, 동해안의 포항은 3월 31일에 20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 역	지 역	대조기(망 3.12)		대조기(삭 3.28)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서해안	인 천	866	17:14	877	17:21
	안 흥	639	16:13	659	16:15
	군 산	660	15:30	670	15:34
	목 포	443	14:30	438	14:37
남해안	제 주	250	10:20	263	23:10
	완 도	357	10:14	372	22:38
	마 산	182	09:00	192	21:29
	부 산	113	08:31	121	21:01
동해안	포 항	13	02:53	16	03:38
	속 초	24	02:31	25	02:54
	울릉도	11	02:08	12	0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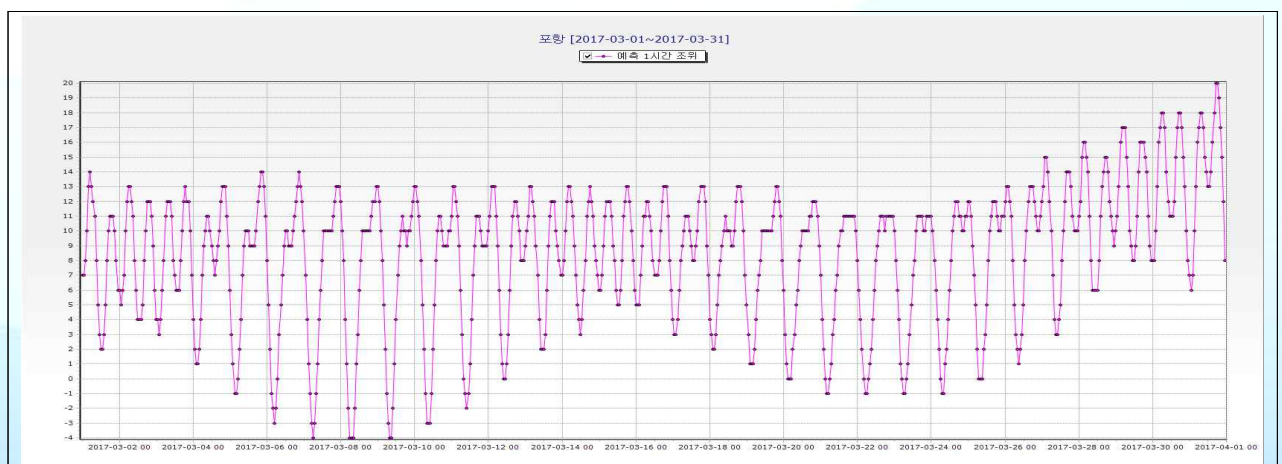
2017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ARS(1588-9822), 조석예보앱(Androi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3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017년 3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017년 3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해난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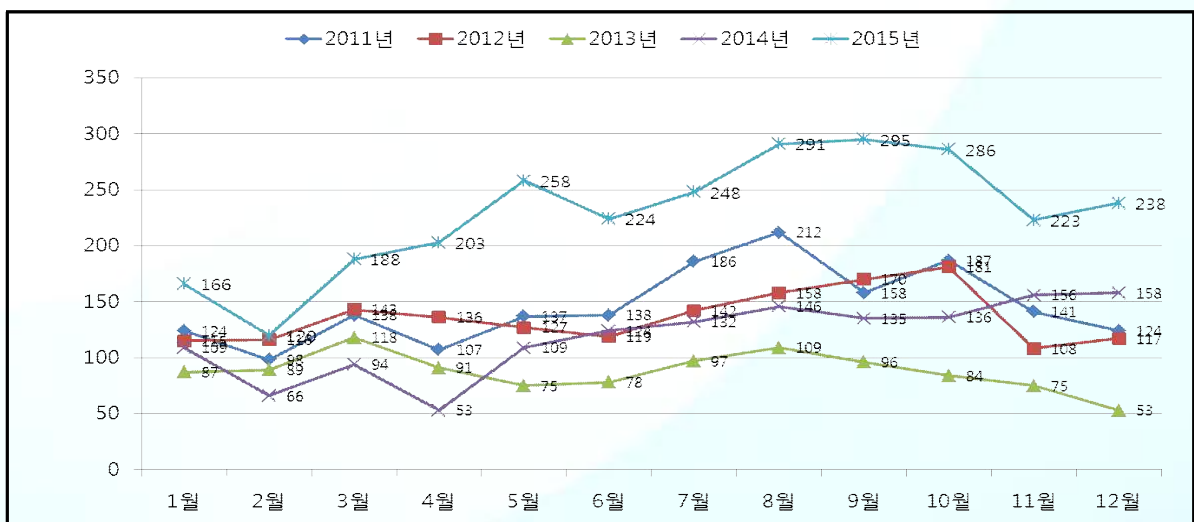
제공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 해상조난사고 통계(최근 5년간, '11.1.1 ~ '15.12.31)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는 총 8,592척(58,783명)이 발생하여 선박 8,255척(96.1%) 및 선원 57,949명(98.6%)이 구조되고, 선박 338척(3.9%) 및 선원 807명(1.4%)이 사망(623명) · 실종(211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구 분	발 생		구 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계	8,592	58,783	8,255	57,949	338	807	623	211
2015년	2,740	18,835	2,639	18,723	101	112	77	35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8	458	396	89
2013년	1,052	7,963	1,015	7,896	37	67	48	19
2012년	1,632	11,302	1,570	11,217	62	85	64	21
2011년	1,750	9,503	1,680	9,418	70	85	38	47

■ 월별 선박사고 현황



▶ 해상조난사고 현황(3월)

- 3월의 해상조난사고는 어선 419척, 예부선 51척, 레저선박 48척 등 총 681척 발생
- 3월부터 봄철 행락객이 증가하여 수상레저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운항이 증가하고, 조업철이 시작됨에 따라 출어선도 급증하여 사고발생 개연성 증가



해양 안전정보

- 최근 5년간 3월 선박사고는 평균 136여척이 발생하여, 봄철 농무기가 시작됨에 따라 안개로 인한 시정불량에 따른 충돌접촉, 좌초, 어망걸림 사고가 급증
- 특히 이 시기 서해, 남해해역에서는 해무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레이더 견시를 철저히 하고, 기상예보 및 항행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항해에 유념



해난사고 방지대책

■ 무리한 조업·항해 자제 및 항해중에는 어창 등 개구부 밀폐 철저

- 동절기에는 해수온도가 저온이므로 해상탈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며 불가피하게 해상으로 탈출할 경우에는 보온복 및 구명동의 착용 후 탈출
- 실족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내 정리 및 승선원 확인 철저.
- 해상 추락 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자세 등 기본적인 대처법 숙지

■ 출항 전 기상정보 파악 및 인명구조 장비 확인 철저

- 동절기 급격한 기상악화 또는 농무기로 인한 대형 인적·물적피해 발생 개연성이 높으므로 출항 전 및 조업중 기상정보 파악 철저
- 통신망 및 인명구조장비 등 정비·점검 후 출항, 동절기 신속한 선박·선원 구조를 위해 가급적 선단선을 편성하거나 인근에 어선이 있는 해역에서 조업

■ 장기 정박 후 조업 출항하는 어선은 선체 및 엔진 정비 후 출항

- 동절기와 하절기 기상이 혼재하여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해상날씨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체 및 엔진이 노후된 선박은 충분히 점검 후 출항
- 보온용 전기장판 등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전원 단락 철저(FRP 어선은 화재 발생시 해수를 이용한 진압 불가)

■ 5톤 미만 소형어선(1인 조업선)은 자체 안전대책 강구

- 5톤 미만의 소형 1인 조업선은 해양사고 발생시 인지가 불가하므로 가급적 선단선 편성 출항, 필히 구명동의(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조업
- 해상에서 신속하게 구조를 받기 위해 구조요청 장비 및 관련 번호 숙지
- 해상 생존술 및 주의사항 사전 확인



3월 해양사고 예보

제공 : 해양안전심판원

[최근 5년('12~'16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기준]

3월에 주의해야 할 해양사고 및 예방대책

◇ 3월 사고 발생률은 1년 중 낮은 수준(연평균 131건, 3월 120건)이나, 기관손상 사고는 전월(2월) 대비 77.9% 증가

○ (사고유형별) 기관손상 201건, 안전운항저해 89건, 충돌 59건, 화재·폭발 45건, 인명사상 37건, 좌초 31건, 침몰 17건 등의 순('11~'15, 단위 건)

○ 최근 5년간 월별 기관손상 사고현황('11~'15,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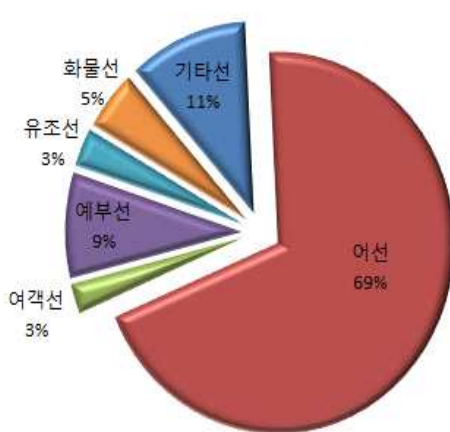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46	113	201	174	225	220	244	245	250	275	208	172

* (3월 기관손상 선종별) 어선 154건, 기타선 32건, 화물선 6건, 예부선 5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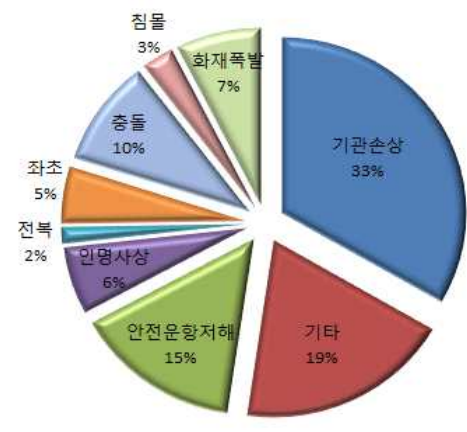
** (기관손상 원인분석) 대부분 어선에서 발생, 해빙기·농무기 시작에 따른 사고증가

3월 해양사고 현황

최근 5년간 3월 해양사고는 총 602건(681척) 발생하여 연평균 120건 발생('11~'15)



선종별 해양사고 현황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3월 주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 어선-모터보트 충돌사고 예방

주요 취약점	개선방안
○ 해상에서 묘박 후 형상물 표시 없이, 낚시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경계 소홀 ○ 양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 주의 환기신호 알림이 미흡할 수 있으며 조기 충돌 회피 동작이 어려움 ○ 혼자 승선시, 운항 중 조타실을 떠나게 될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음	○ 해상에서 묘박 중일 경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해야하며, 주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둥근꼴의 형상물을 표시해야함 ○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해야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주의 환기를 위해 발광신호 및 음향신호를 보내는 등 조기 충돌회피 동작을 취해야 함 ○ 혼자 승선시 운항 중 조타실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레이더 등 항해보조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해야함

◆ 여객선 기관손상사고 예방

주요 취약점	개선방안
○ 릴리프밸브의 손상을 막기 위해 연료유 여과기에 대한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야함 ○ 여객선의 경우 여러 곳을 기항하기에 선박운항 중 주기관 점검·수리 어려움	○ 연료유 여과기를 주기적으로 점검·정비 후 기록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 기관장이 바쁜 운항스케줄로 점검·정비가 어려울 경우 육상지원 필요 ○ 운항자는 주기관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순정품의 예비부품을 선박에 충분히 공급해야함



★ 3월의 예상 수온

3월의 수온은 동해가 7~13℃로 평년에 비해 1~2℃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이겠고, 남해는 8~14℃, 서해는 4~8℃ 분포로 평년과 비슷한 수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동해: 7 ~ 13℃ 분포
- 남해: 8 ~ 14℃ 분포
- 서해: 4 ~ 8℃ 분포

▶ 지난달 수온 분포

2월의 연안수온은 월평균 1.1~12.4℃ 범위로 분포하였음.

동해연안은 8.5~9.9℃, 남해 연안은 6.9~12.4℃, 서해연안은 1.1~7.1℃의 분포를 보였음.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된 한반도 주변 해역의 2월 표층 수온분포는 동해 연근해역은 10~16℃로 평년에 비해 1~2℃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였으며, 남해 연근해역은 8~19℃로 평년에 비해 1~3℃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였고, 서해 연근해역은 4~10℃로 평년에 비해 1℃ 내외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임.

3월의 수온은 동해가 7~13℃로 평년에 비해 1~2℃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이겠고, 남해는 8~14℃, 서해는 4~8℃ 분포로 평년과 비슷한 수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지난달(1월) 어황

2월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말쥐치는 평년비 순조로웠고, 갈치, 망치고등어, 멸치는 평년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고등어, 살오징어, 전갱이, 참조기는 평년비 부진하였음.

▶ 3월 어황 정보

3월에 들면 대형선망어업은 고등어, 전갱이, 방어, 갈치, 삼치, 참다랑어 등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동해 남서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

기선권현망어업이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조업하겠으며, 울산~기장 연안에서도 동해 중남부해역에서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 될 것으로 예상.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일 것으로 전망.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주 서부 먼바다와 남해 서부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 되겠으며 갈치, 아귀류, 참조기 등을 대상으로 조업할 것으로 전망.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참조기, 삼치, 갈치 등을 대상으로 제주남서부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될 전망이며, 제주 동부해역에서도 일부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제주도 남서부 근해부터 남해 동부해역에 걸쳐 아귀류, 가자미류, 쥐치류, 갑오징어류, 민어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은 눈볼대, 가자미류, 아귀류, 민어 등을 대상으로 제주 남서부 근해~대마도 북쪽 근해에 걸쳐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은 경북 및 강원연안에서 도루묵, 기름가자미, 청어, 대구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

오징어채낚기어업은 계절적으로 동중국해로 남하한 어군에 의해 동해 전역에서 어장이 한산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남해 동부 및 제주주변해역에서 일부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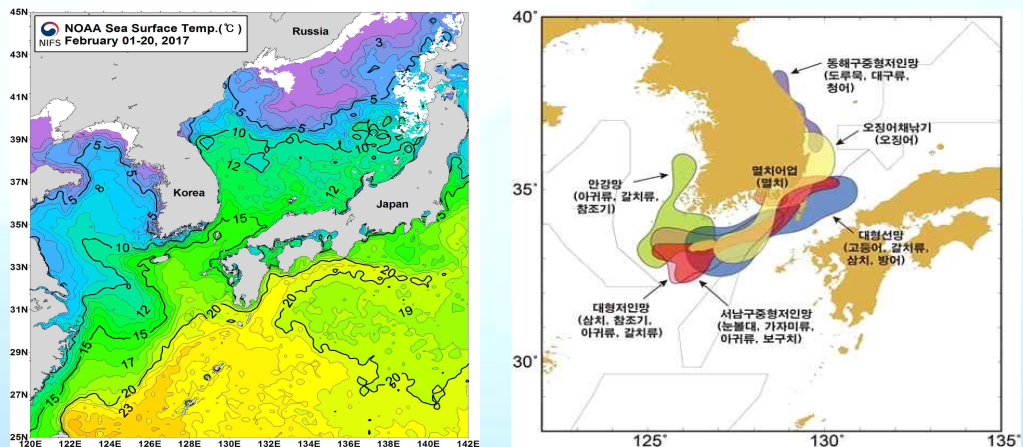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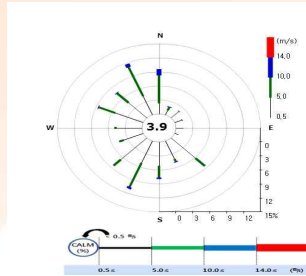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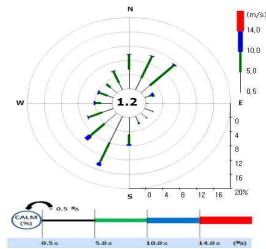
그림 . 광역 수온 분포(위성) 및 어업별 예상어장도(3월)

고 등 어	고등어는 제주 서부 해역에서 어군 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 동부~대마도간 해역을 중심으로 남북방향으로(제주 남동부~동해 남서부 해역) 어장이 넓게 형성될 전망.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 할 것으로 전망.
살오징어	살오징어는 계절적인 남하회유 이후 제주도~남해 동부해역에 잔류하고 있는 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으나, 우리바다에서의 자원밀도는 전월에 비해 크게 낮아져 한어기(3~6월)가 시작되겠음.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멸 치	멸치는 남해도~거제도 주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며, 하순부터는 울산~기장 주변해역에서도 회유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한 봄어기가 도래할 전망.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일 것으로 전망.
갈 치	갈치는 제주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연중 어군밀도가 가장 낮은 시기를 맞겠음.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되나, 미성어의 어획비율이 여전히 높아 소형개체를 대상으로 한 어획자제가 요구.
참 조 기	참조기는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어군에 의해 제주 서부해역을 중심으로 제주 주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
전 갱 이	전갱이는 제주 주변해역부터 동해 남서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산란기(2~4월)를 맞아 산란장인 동중국해로 남하하는 시기로 우리어장에서의 어군밀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기 타	그 외, 망치고등어는 제주 남동부 근해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평년수준의 어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 말쥐치는 제주 남동부~남해근해에서 어장이 형성되어,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의 어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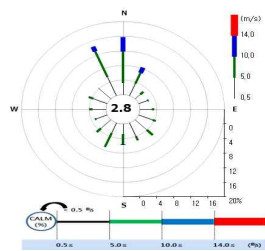
3월의 해상풍(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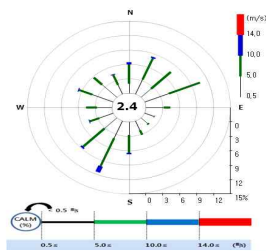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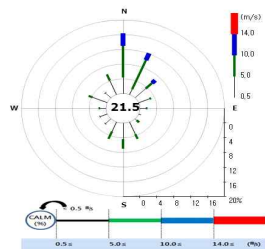
울릉도독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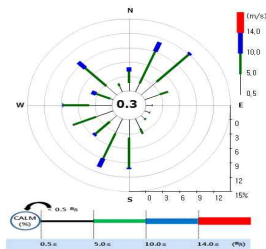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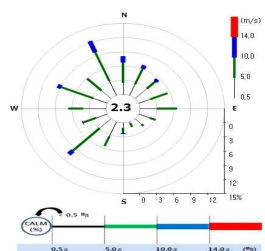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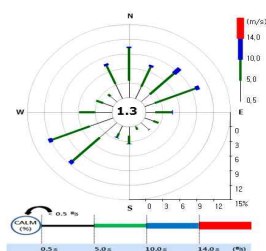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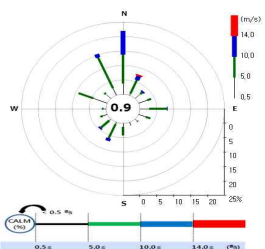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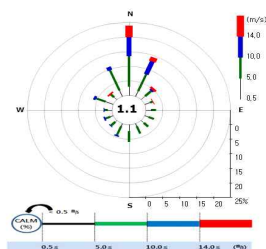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동쪽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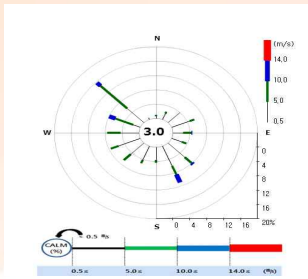
추자도(남해서부서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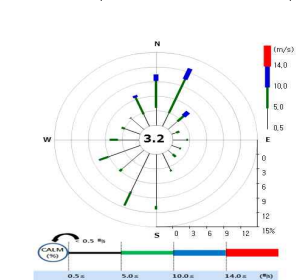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남쪽면바다)

그림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6년 3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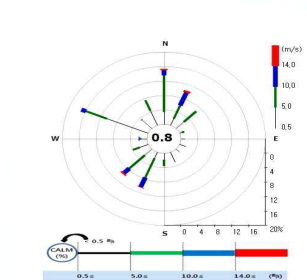
3월의 해상풍(등표기상관측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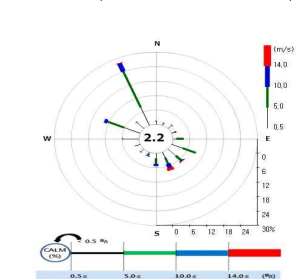
서수도(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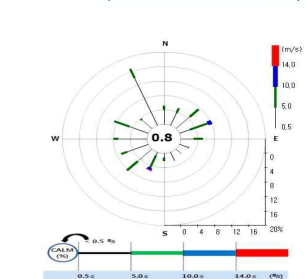
가대암(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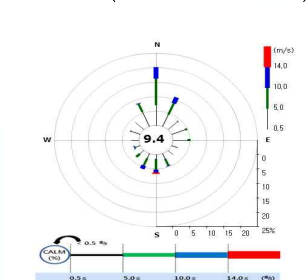
이덕서(동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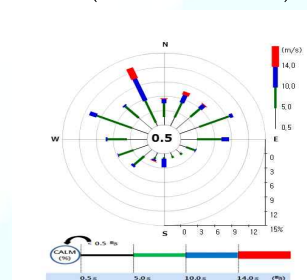
십이동파(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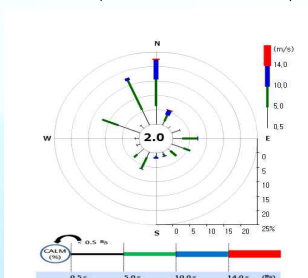
광안(남해동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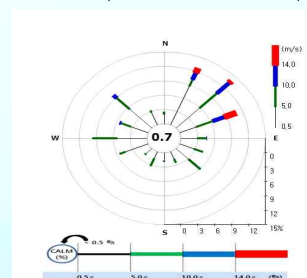
갈매여(서해남부앞바다)



간여암(남해서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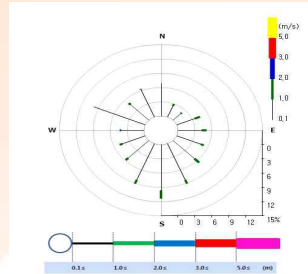
해수서(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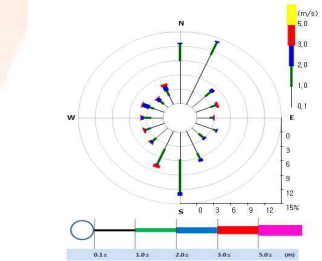
지귀도(제주도 앞바다)

그림 . 등표기상관측장비 관측 해상풍('16년 3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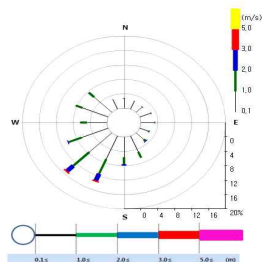
3월의 파랑(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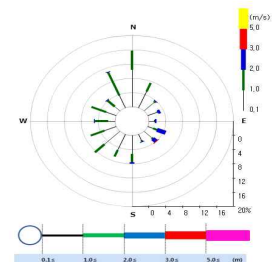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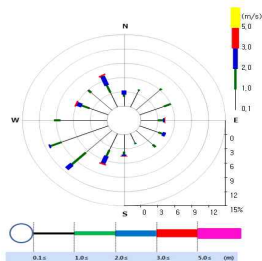
울릉도독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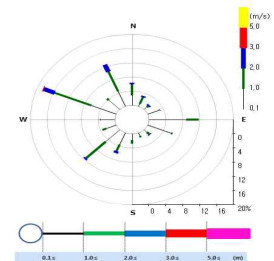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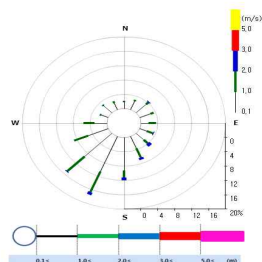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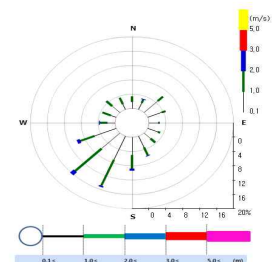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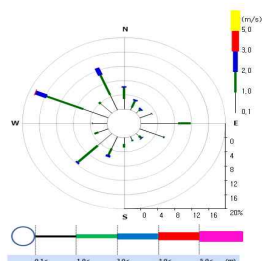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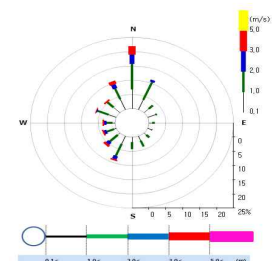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동쪽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추자도(남해서부서쪽면바다)



마라도(제주도남쪽면바다)

그림 . 해양기상부이 관측 파랑('16년 3월, 파랑장미)

▶ 3월의 주요 해양사고일지

일 시	선 명	피 해	사고원인
'16.3.27 13:26	태*호 (9.77톤, 연안자망, 승선원 6명)	선체전소	조업 중이던 연안어선 태*호(9.77톤)이 양망 중 기관실 합선으로 불꽃이 유류에 옮겨붙어 화재 발생 ※ 당시기상 : 남서풍, 6~8㎧, 파고 1~1.5m

'16.3.27. 태*호



106오*호 사고현장



수색현장